

1924년 극동지역 최초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에 관한 연구

정막래

제1저자, 전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전공 교수, 문화콘텐츠학 전공

jml764@daum.net

주동완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콘텐츠학부 부교수, 문화콘텐츠학 전공

krci4@hotmail.com

I. 머리말

II. 극동지역의 고려인과 고려인 도서관

III.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

IV. 고려인 도서관의 서적

V. 맷음말

I. 머리말

1920년대 극동지역에 고려인 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사실은 오늘날에 놀라움을 안겨주지만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고려인¹⁾들에게도 무척 감동적인 사실²⁾이었다.

지난 5일 신한촌 스탈린 구락부에서 고려도서관 개관식을 거행하는데 여러 동무의 보고와 축사를 듣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개를 주었다.

이렇게 큰 감동을 안겨 준 대사건인 고려인 도서관의 개관식이 극동지역에서 거행되기까지는 고려인 아주 이후 60년³⁾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17년 10월 혁명을 승리로 이끈 소비에트 당국은 이어진 내전에서 백군에게 승리를 거둔다. 국내에 권력을 확장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극동지역의 고려인들 역시 소비에트화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20~30년대 극동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들에게 이른바 문화·교양 사업 중의 하나로 도서관 운동이 장려되었다.⁴⁾ 이때 그곳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 역시 도서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 극동지역의 고려인 도서관이 나타나는 과정과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료는 신문 『선봉』⁵⁾에 나타난

1) 오늘날 CIS에 거주하는 한인을 칭하는 말로는 재러한인, 고려인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사료로 삼고 있는 신문 『선봉』에서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 는 1920~30년대 연해주에서 삶을 일구어온 한민족을 고려인으로 표한다.

2)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3) 60년은 1860년 중국과의 텐진조약으로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에 편입된 후부터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이 개관하는 시기까지의 60년을 말한다. 고려인들의 러시아 땅으로의 공식적인 아주은 186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문 『선봉』에서 “아령 60년”이라는 표현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고려 도서관 개관식-스탈린 구락부에서」 (1924년 12월 22일, 2면) 참조.

4) 이것에 대해서는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볼세비키) 원동변강위원회 류로의 결정」 (1936년 4월 11일, 1면과 2면)을 참조할 것.

5) 신문 『선봉』은 1923년 3월 1일에 『3월 1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행되었다. 1925년 4월 7일 당시의 발행부수는 2,000부에 달했다. 1925년 11월 14일에는 2,500부, 1929년에는 12월 15일 4,400부에 달했다. 이 신문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때인 1937년까지 발행되다가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신문의 이름을 『레닌기치』로, 개방 이후에는 『고려일보』로 바꾸어 계속 발행되고 있다.

기사들이 될 것이다. 이 신문에는 극동지역 고려인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려인 도서관 설립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신문에 기사화되어 있는 도서관의 특성과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에서는 1920~30년대 극동지역의 고려인 도서관 설립과정을 재구성해보았다.

1920~30년대 고려인들의 극동지역에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문『선봉』 덕분이다. 이 신문은 극동의 연해주 지역⁶⁾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에게 당시의 시대상황을 알리고 이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1923년에 창간되어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⁷⁾를 당하는 1937년까지 발행되었다.

당시에 소비에트 당국은 극동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몰랐기에 이 신문을 한국어로 발행하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다. 이는 소비에트 혁명과 내전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당국이 극동지역까지 권력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였다. 계몽을 통해 전 러시아의 소비에트화를 서둘러 달성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당국은 극동지역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신문을 발행하도록 고무했던 것이다. 요컨대 고려인 신문『선봉』은 국가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려인들을 계몽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신문의 발행을 전적으로 국가가 담당한 것이 아니어서 이 신문은 유료로⁸⁾ 판매되었지만 한국어로 발행된 신문을 소비에트 당국에서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료로 삼을 자료는 『선봉』이 창간된 이후부터 1937년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까지의 기사들 중 고려인 도서관에 관한 기사들이다. 극동지역 고려인 도서관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재했다.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극동지역 고려인 전체에 대한 연구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어로 된 연구서로는 고려인의 극동지역으로 이주와 고려인

6) 연해(沿海) 지역은 바다 옆을 뜻하는 프리모르스키(Приморский) 지역을 말한다.

7)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 강제이주는 1937년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로 강제이주 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8) 당시의 신문『선봉』 1부의 가격은 10전이었다. 『선봉』, 1924년 7월 1일자.

역사에 대한 저서⁹⁾와 고려인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과 일반 논문¹⁰⁾이 있다. 이 논문들은 극동지역 고려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이주 이전 극동지역 고려인에 대한 연구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까닭은 당시 극동지역 고려인 사회의 기본적인 소통매체였던 『선봉』과 같은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당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고려인들 입장에서 나온 신문으로 고려인들의 주관이 가미되어 있기에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문서보관소에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자료들과는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고려인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 『선봉』이라는 자료가 이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자료 중의 하나임에도 이 신문이 한국어로 발행되어서 러시아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어로 된 연구 자료보다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까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선봉』을 접하게 된 국내의 연구자들은 1920~30년대의 고려인에 관한 논문을 내놓고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고려인의 극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¹¹⁾, 고려인 사회의 문화생활과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¹²⁾, 고려인 문학과 출판에 대한 연구¹³⁾, 연해주 고려인의 법에 대한 연구¹⁴⁾, 고려인

9) Герма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Алматы, 1999),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1965).

10) Бэ Ын Гиё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20–30-е годы XX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 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1998); Сим Лариса, “Корейцы Союза ССР,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20-е год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Краснодар, 2006); Сон Жанна, “Корей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истеме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юза ССР. 1920–1930-е годы”,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2009);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1922–1938)”, (Москва, 2001).

11) 양민아, 「1920~30년대 연해주 한인들의 공연예술활동 현황연구」, 『제외한인연구』 34(2014); 배은경, 「고려인 신문 『선봉』을 통해 본 1930년대 (원동고려극단)의 극예술 활동과 고려인 사회에서의 그 위상과 역할」, 『제외한인 연구』 35(2015).

12) 반병률, 「전면적 접근’ 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지역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30(2008); 배은경, 「소련 고려인 사회의 문화생활(1920~1930년대)」, 『대동문화연구』 43(2003); 반병률,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19(2003).

13) 박찬수, 「1920~30년대 고려인 출판문화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1(2015); 배은경·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

사범대학에 대한 연구¹⁵⁾, 극동지역 미취학아동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¹⁶⁾, 그리고 고려인 학자인 보리스 박이 기술한 140년에 이르는 고려인의 러시아 삶을 연구한 개괄서¹⁷⁾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 1920~30년대 극동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지만 이 시대 극동지역의 고려인 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는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특정한다. 2장에서는 극동지역의 고려인과 고려인 도서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3장에서는 극동지역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인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고려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장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맷음말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과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확인한다.

II. 극동지역의 고려인과 고려인 도서관

극동지역에 이주한지 60여년 만에 고려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서적을 갖춘 자신들의 도서관이 생겼다. 고려인들에게 고려인 도서관이 생긴다는 사실은 그들의 일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극동지역에 고려인 도서관¹⁸⁾이 문을 연 것은 1924년 12월 5일이다. 이날 해삼현

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 문화연구』 56(2015); 이상갑, 「고려인 문학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선봉』에 실린 작품과 문예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1(2014).

14) 임재완 · 허성태 · 정금희 · 이명희 · 장우권 · 전형권, 『연해주 고려인의 법과 생활 그리고 교육(1920~30년대)』(복코리아, 2012).

15) 배은경,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 교원 양성 정책과 원동조선사범대학에 관한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슬라브학보』, 제30권 제3호(2015); 배은경,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고려사범전문학교에 관한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권(2015).

16) 정막래, 「1920년대 극동지역 미취학아동 교육기관: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제57집(2016).

17) 보리스 박,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도서출판 시대정신, 2004); 이상근, 『러시아 · 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국학자료원, 2010); 이송호 · 이재훈 · 김승준, 『연해주와 고려인』(백산서당, 2004).

18) 신문 『선봉』에는 '고려 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도서관이 고려인들이 이용할

신한촌 스탈린 구락부에 대대적인 개관식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신문 『선봉』은 12월 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기사¹⁹⁾를 내보낸다.

그 첫 번째 기사에서는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을 개관하는 데에 대한 벅찬 고려인들의 심정을 “무한한 감개를 주었다”²⁰⁾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날의 기사는 고려인들이 실제로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극동지역의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당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신한촌의 스탈린 구락부에서 문을 연 이 고려인 도서관은 극동지역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녔으며 또한 고려인 사회에 책이라는 귀한 자원을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가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극동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절함은 최초의 도서관이 생기기 전인 1923년에도²¹⁾ 보인다. 당시의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문을 모으고 독서회와 신문 낭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문을 부지런히 모아라. 잡지를 다투어 사보라. 서적을 늘 가까이 하라. 한 조각의 뼈리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독서회, 신문 낭독회를 개최하라. 도시나 향촌을 막론하고 반드시 도서종람소를 만들어라. 순회도서관을 여투어라.

고려인들은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며 순회도서관을 이용하였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민족 도서관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 도서관을 지니지 못한 민족인 자신들이 문화가 뒤쳐져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²²⁾을 잘 알고 또한 느끼고 있었다.

반세기나 살아온 60년 동안에 이제야 처음 도서관을 열게 된 그 문화의 뒤떨어짐과 생활의 참담함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수 있는 고려말로 된 책들을 구비해놓은 도서관임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려인 도서관’으로 표기한다.

19)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스탈린 구락부에서」 (1924년 12월 22일, 2면)

20)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21) 『선봉』, 「출판물과 혁명」 (1923년 5월 12일, 3면).

22)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반세기나 살아온 60년 동안에”라는 표현대로 타향살이를 시작한 지 6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민족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는 것은 타향살이의 설움까지 이 도서관 속에 고스란히 묻고 싶은 고려인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에 대한 기사 제목을 “아령 60년에 첫 사업”으로 정한 것에서도 이러한 서러움과 동시에 고려인들의 큰 자부심이 잘 드러나 있다. 고려인들은 자신의 민족 도서관이 이렇게 늦게 세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고려인 자신들이 처했던 외지에서 소작농으로서 살아온 서러운 삶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음에 대해²³⁾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국경이 다르고 민족의 차별로 남의 토지에서 소작인의 경우로 생활의 여유가 없었고

고려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제정러시아 시대에 언어와 문자까지 금지당하며 살아왔다고²⁴⁾ 말하고 있다.

더욱 제정시대에 외국인의 언어와 문자를 엄금하였음으로 문화 운동에 생각도 미치지 못할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었던 고려인들이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임을 토로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순전히 10월 혁명 덕분임을 지적한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받아 소작인으로 생활의 여유 없이 살아온 가난하고 힘들었던 삶을 탓하는 동시에 10월 혁명을 외국인의 언어와 문자를 엄금했던 제정 러시아 시대와 비교하며²⁵⁾ 현 체제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에야 고려도서관이 비로소 열리게 됨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현대 사회제도의 불합리한 결과이다. 이를 짐작하는 우리들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을 더 한층 각오하여야 될 것이다.

23)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24)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25)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10월 혁명이 가져다 준 행복에 대해 말하는 고려인의 모습 속에서 당시 사회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혹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살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시 억압받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 투쟁의 무기가 곧 서적임을²⁶⁾ 강조하고 있다.

원래 인류 생활의 도정은 투쟁이다. 원시시대에는 자연과 투쟁하여 그것을 우리 생활의 재료로 쓰게 하였고 지금은 사람 사이에 계급적으로 투쟁하여 실지에 생활하는 노력 군중이 정권을 잡으려고 투쟁하는 중이다. 이 투쟁에는 오직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이니 그는 생활의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과학적으로 경험에서 얻은 사람의 뜻을 표시하여 기록한 서적 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를 보면서 계급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좋은 무기인 서적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문 『선봉』의 기사에서는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 서적을 많이 모아놓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²⁷⁾ 말을 이어간다.

이러한 서적을 많이 모아놓은 곳이 도서관이다. 이에 대한 정의와 가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도서관이 부르주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권유와 다짐을 한다. 기사에서는 “오늘날 세계에 유명한 도서관들은 수백 만권의 서적을 소장하며 그 굉장한 설비는 모두 부르주아를 위하는 보고(寶庫)이며 무기이다.”²⁸⁾라고 말하며 이들이 프롤레타리아인 고려인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이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행할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²⁹⁾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도서관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실행할 것이 제일 노력하며 연구할 문제일 것이다.

26)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27)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28)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29) 위의 기사 (1924년 12월 8일, 1면).

도서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자세 또한 엿볼 수 있다. 도서관 같은 시설을 “노동 군중의 사상생활을 지배하는 문화망”³⁰⁾으로 여겼던 고려인들에게 있어 도서관은 특별한 존재였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우리의 생활은 공동적인 것에서 뜻이 깊고 발전됨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고려 사람의 힘을 단합하여 이 도서관을 확장하며 농촌에 도 보습”³¹⁾시키자는 당부를 한다. 이것은 고려인 도서관을 모두 함께 힘을 합해 더 발전하도록 만들어갈 것을 고려인 사회에 당부하는 말이다.

도서관 개관을 보면서 고려인 사회에 정신적인 훈련 요강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요지의 이 기사는 그동안 타지에서 살아온 서러운 삶에 대한 서러움을 어느 정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

신문 『선봉』은 극동지역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을 보면서 감성적인 기사를 내보내느라 도서관 개관식에 대한 개요를 적는 것을 잊고 만다.

극동지역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을 보고서 이와 같은 강한 선동적인 기사를 내보낸 신문 『선봉』은 이 도서관에 대해 12월 22일에 기사³²⁾를 한 번 더 내보낸다. 이때에는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 기사를 처음 내보낼 때 누락시켰던 자료들을 요약하고 있다.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의 개관식 개요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신한촌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 개요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 개관식		
개관일	1924년 12월 5일	극동지역 최초의 도서관
위치	신한촌 스텔린 구락부	해설현 신한촌
선언자	리동휘	개관식 선언
연설자	연해도 교육부 대표	축하 연설
보고자	김철훈	도서관에 관한 숫자 보고
별칭	고골 도서관	러시아 문학가 이름을 땀

30) 『선봉』, 「벽신문 기자 동지들에게 주노라」(1924년 12월 15일, 1면).

31)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1924년 12월 8일, 1면).

32)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스탈린 구락부에서」(1924년 12월 22일, 2면).

위의 표1에서 보듯이 개관식은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리동휘의 개관식 선언, 연해도 교육부 대표의 축하 연설, 김철훈의 도서관에 관한 숫자 보고가 이루어졌다.³³⁾ 유감스럽게도 이 숫자 보고 자료는 신문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 고려인 도서관은 러시아의 문학가인 고골³⁴⁾의 이름을 따서 고골도서관³⁵⁾으로 불린다. 해삼위 신한촌 스탈린 구락부 안에 있는 이 도서관은 당시에 고려인들에게 대중문화를 공급한 유일한 기관³⁶⁾이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대중문화 공급기관이 며칠 동안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야말로 이 일은 신문 『선봉』에 대서특필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은 이유는 도서부장이 휴가를 받아 쉬게 된 까닭이었다. 고려인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변³⁷⁾을 토한다.

도서관이 부장을 위하여 있는가? 군중을 위하여 있는가? 도서부장이 휴가 간다하여 도서관까지 쉰다는 일이야말로 참말로 처음 듣는 말인 동시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여름휴가는 매우 중요해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일임을 감안할 때 도서관의 부장 역시 큰 잘못을 하였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당시의 정서에 맞지 않게 이 도서부장을 크게 탓하고 있다. 도서부장의 휴가로 인해 그 휴가 기간 동안 도서관이 휴관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이 도서관이 고려인들에게 갈급한 독서 요구를 채워주던 유일한 곳이었기에 고려인들이 이 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책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이다. “고려인 도서관에서 가져간 책자들을 돌려보내시오”³⁸⁾라는 기사

33)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스탈린 구락부에서」 (1924년 12월 22일, 2면).

34) 고골(1809~1852)은 러시아의 작가이자 극작가로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조라고 불린다. 『코』, 『외투』, 『죽은 혼』, 『검찰관』 등의 작품이 있다.

35) 『선봉』, 「문을 닫은 도서관-묵과 못할 신한촌 도서관(아래아지미에서-일기자)」 (1927년 7월 14일, 3면).

36) 위의 기사 (1927년 7월 14일, 3면).

37) 위의 기사 (1927년 7월 14일, 3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았다. 10월 28일자 기사에서 “본 고려인 도서관으로부터 가져간 책자들을 11월 20일 이내로 꼭 돌려보내시오”³⁹⁾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대여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날짜만 계산해도 23일 기간이 된다. 이 기사를 낼 때 이미 연체되어 있기에 돌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보면 대여기간은 한 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도서대여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은 일상의 일로 인해 한가하지 않았을 고려인들이 마음 놓고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빨리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기일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관을 경유하여 엄중한 수단을 취하게 됩니다”⁴⁰⁾라는 문구를 살펴보면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기관을 통해 엄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을 것이다. 빌려간 책을 반드시 반납하라는 도서관의 규율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인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 외에도 신문 『선봉』에는 또 다른 고려인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인다. 그것은 니콜스크 시⁴¹⁾ 고려인 도서관⁴²⁾이다.

표2-니콜스크 시 고려인 도서관 개관 예정

니콜스크 시 고려인 도서관	
개관예정일	1926년 12월 이후
위치	니콜스크 시
기부금	40여원

니콜스크 시 고려인 도서관 개관에 대한 기사와 이 개관을 위한 기부금 관련 기사가 1926년 12월 2일에 신문 『선봉』에 실린 것으로 보아 이

38) 『선봉』, 「고려 도서관에서 가져간 책자들을 돌려보내시오 11월 20일 안으로(해삼위 신한촌-고려 도서관에서)」(1928년 10월 28일, 4면).

39) 위의 기사 (1928년 10월 28일, 4면).

40) 앞의 기사 (1928년 10월 28일, 4면).

41) 『선봉』, 「도서관 설립에 기부하는 동정(기자 립호)」(1926년 12월 2일, 3면)을 참조할 것.

42) 기사에서는 고인도서관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고려인의 줄임말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의 기사 (1926년 12월 2일, 3면)을 참조할 것.

도서관은 적어도 1926년 12월 이후에 개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이 액수는 40여원⁴³⁾에 달했다. 이 후원금으로 인해 니콜스크 시 도서관의 설립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기사에서는 이 도서관이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후원금까지 모집한 상황으로 도서관 개관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 외에 고려 서적은 국립원동대학 도서관⁴⁴⁾에도 있었다. 이 도서관에는 고려 서적 코너가 마련되어 이곳에 상당한 양의 고려 서적들을 갖추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원동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전부 22만권으로 그 가운데에는 중국, 고려, 일본 등의 동양 도서도 많았다는 사실을 신문 『선봉』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3- 국립원동대학 도서관 내 고려 서적

국립원동대학 도서관 내 고려 서적	
전체 서적	도서 22만 권
고려 서적	중국, 고려, 일본 등 동양 도서 많음

고려인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고려인 코너에 고려인들을 위한 책들이 갖춰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 도서관에도 여러 민족의 서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원동변강 당위원회가 일반 도서관에 각 민족마다 자기 민족의 서적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놓을 책임을 인민 교육부들과 직업동맹 단체들에 부담시키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금 및 백금 채굴 노동자 직업동맹위원회는 부분적으로 담부카, 블라지미르스크, 쿨리칸, 에糍찬, 케드로프, 바실옙스크, '일리즈'⁴⁵⁾ 금광들에 중국인 및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족서적 덕대⁴⁶⁾, 즉 민족서적 코너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⁷⁾ 금광에서 일하는 고려인 노동자들 역시 책을 접할 기회가

43) 1924년 12월 공정 물가표에 따르면 계란 10개에 30전, 백미 1근에 9전, 감자 1푸드에 60전, 비누 하나에 18전이었다. 이 물가표로 판단해 볼 때 1926년에 기부금 40원은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선봉』, 「최근 공정 물가표」, (1924년 12월 8일자, 4면)을 참조할 것.

44) 『선봉』, 「국립 원동대학 도서관 서적권수」 (1927년 8월 11일, 2면).

45) '일리즈'는 레닌의 부칭으로 '일리즈 금광'은 '레닌 금광'으로 해석된다.

46) '덕대'는 책을 꽂는 '선반'을 말한다.

47) 『선봉』, 「도시들과 노동자 부락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변강 당위원회 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인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30년대 극동지역에는 1924년 신한촌에 생긴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 외에도 많은 도서관들이 농촌과 도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존재했던 도서관들의 역사와 더불어 고려인 도서관이 발맞추어서 발달해 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역 편제 이전인 1925~26년도 초기에 소수민족 독서실이 전 도에 14개소에 달했는데 구역 편제 이후에는 독서실이 12개, 붉은 구석⁴⁸⁾이 28개였으며 도시에 있는 소수민족의 구락부가 3개, 붉은 구석이 2개 그리고 고려도서관이 1개⁴⁹⁾였다. 1936년 변강 당위원회 뷰로는 농촌에 구역 도서관 81개, 콜호스 내 도서관 140개⁵⁰⁾, 도시에 시립도서관 22개, 기관 부속 도서관 250개⁵¹⁾ 등 많은 도서관들을 세울 결정을 했다.

1928년 도서관에 관한 기사가 실린 후 거의 8년 동안 도서관 기사는 신문지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는 도서관 사업이 별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1936년에 변강 당위원회 뷰로가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한 사업안⁵²⁾과 도시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한 사업안⁵³⁾을 내놓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때에도 도서관이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IV. 고려인 도서관의 서적

고려인 도서관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이 극동지방에 세워지던 때에 이미 기사로 드러났

의 결정에서)」(1936년 7월 21일, 3면).

48) '붉은 구석'은 러시아어로 'красный угол'로 '붉은 방'이란 뜻으로 당의 '소그룹'을 말한다.

49) 『선봉』, 「소수민족과 소비에트(김만겸)」(1927년 3월 31일, 3면).

50)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불세비기)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1936년 4월 11일, 1면), 위의 기사 (1936년 4월 11일, 2면).

51) 『선봉』, 「도시들과 노동자 부락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변강 당위원회 뷰로의 결정에서)」(1936년 7월 21일, 3면).

52)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불세비기)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1936년 4월 11일, 1면).

53) 위의 기사 (1936년 4월 11일, 1면과 2면).

다. 고려인들이 도서관에서 읽어서는 안 될 도서목록으로는 “그저 소일꺼리로 영웅 역사나 연애 소설”을 들고 있고, “태양의 광열, 동식물의 생장, 화학, 전기의 응용” 등을 열심히 연구할 것을⁵⁴⁾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인 도서관을 포함하여 극동의 농촌과 도시에 세워진 도서관들에는 어떤 책들이 채워져 있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 전 동맹 공산당(볼세비키)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가 제시하고 있는 필독도서목록이다. 원동변강에 살던 민족 중의 하나였던 고려인들이 역시 이 필독도서를 읽어야 했을 것이다. 이 목록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접한 도서들을 알 수 있다.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필독도서목록⁵⁵⁾은 다음의 표4와 같다.

콜호스원들은 위의 표4에 나타난 목록 가운데 2-3권은 반드시 읽도록 하였다. 필독서로 제시되어 있는 목록은 당시의 작품을 쓰는 강령으로 작용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쓴 작품들로써,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당국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그 내용은 사회주의로 하고 그 표현 방식은 리얼리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34년 제1차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사회주의 작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창작방법이 되었다.

표4- 필독도서목록

	작가	작품
1	고리키	『어머니』
2	푸르마노프	『차파에프』
3	솔로호프	『개간된 황무지』
4	오스트롭스키	『나는 사랑한다』
5	노비코프-프리보이	『추시마』
6	이바노프	『철갑차』
7	스탑스키	『급주』
8	파데예프	『파괴』
9	판료로프	『부루스키』

54) 『선봉』, 「고려 도서관 개관식에 대하여-아령 60년에 첫 사업」 (1924년 12월 8일, 1면).

55)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볼세비키)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 (1936년 4월 11일, 2면).

당국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극동지역의 소비에트화를 위해 얼마나 힘을 썼는가 하는 것을 이 필독서 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필독도서목록에 나오는 9권의 도서의 작가들은 모두가 당국이 제시한 노선에 따라서 글을 썼던 작가들이다. 1920-30년대는 혁명에 성공하고 내전에 승리한 소비에트 당국이 나라에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던 때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작가들의 노선을 당국의 지침에 맞도록 들려놓을 필요가 있었다.⁵⁶⁾

필독서 가운데 몇몇 작품들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당시 고려인들이 어떤 사상에 젖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작품은 고리키의 『어머니』⁵⁷⁾이다. 이 작품은 혁명운동을 하는 아들과 시골의 노동자 계급 여성인 어머니의 삶을 그린 이야기이다. 푸르마노프의 『차파예프』는 붉은 군대의 지휘관인 바실리 이마노비치 차파예프(1887-1919)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으로, 에이젠시타인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고요한 돈강』의 작가로 유명한 솔로호프의 장편인 『개간된 황무지』⁵⁸⁾는 돈강 지역의 집단화와 이곳 집단농장 콜호스에서 농사일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도서관 필독도서목록 가운데 몇 개의 작품을 보았을 때 도서관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극동지역의 도서관에는 당성이 짙은 문학작품 외에도 다양한 서적이 있었다. 혁명적인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은 그곳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따라서 쓰인 작품들 외에도 체육에 대한 서적들⁵⁹⁾도 있었다. 이는 도서관에 다양한 서적을 갖추어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고자 했던 당국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927년에는 혁명 10주년을 맞이한 기념집을 고려말로 편찬하여⁶⁰⁾ 이곳 고려인 도서관에 소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56)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따라서 글을 쓰지 않는 작가들은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거나 국내에 남아 있을 경우 그들의 작품을 해빙기를 맞을 때까지 오랫동안 발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흐루쇼프가 1956년에 스탈린 격하 발언을 한 이후 해빙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서야 이들의 작품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러한 작가들로는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쓴 불가코프, 『우리들』을 쓴 자마틴 등을 들 수 있다.

57)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금서가 되기도 했다.

58) 1932년에 제1권이 나오고 1959년에 제2권이 나왔다.

59)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불세비키) 원통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1936년 4월 11일, 2면).

60) 『선봉』, 「금년 10월 혁명 기념선물로 고려인 활동사진 준비」(1927년 7월 23일, 3면).

극동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한 것 외에도 당 위원회에서는 문화·교양 사업으로 농촌에서 구락부, 종람소, 붉은 구석, 야영숙소, 콜호스원들의 집에 모여서 문예작품의 공동 낭독을 할 것도 계획했다. 이 사업에 교원, 구락부와 종람소 열성자들, 공산당원, 공산청년 동맹원들을 가입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다.⁶¹⁾ 그리고 여러 구역들에서 푸시킨, 톨스토이, 네크라소프, 고리키⁶²⁾의 작품을 반영하는 독자 콘페렌치아⁶³⁾들과 야회⁶⁴⁾들을 조직하기를 권했다. 그리고 구역과 콜호스들에 있는 문예 그룹들, 크루조크⁶⁵⁾원들이 작가 및 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제의⁶⁶⁾하기도 했다.

1920-30년대에 당국은 도서관을 통해서 극동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품들을 필독서로 읽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글을 쓰는 작업도 권장했다. 당위원회에서 문화·교양 사업 중 하나로 펼친 사업 중의 하나가 글쓰기를 권장하는 사업이었다. 구역 신문들에서는 쓰기를 시작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발표하는 난을 조직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신문 『선봉』에서는 일반인들의 작품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V. 맷음말

1920-30년대에 극동지역에서 민족 도서관을 세운다는 것은 고려인들이 '책을 읽는 민족'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그리하여 극동지역에 살았던 고려인들에게 자신들의 말로 된 서적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 사건은 그들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61)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볼셰비키)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1936년 4월 11일, 2면).

62) 푸시킨(1799-1837), 톨스토이(1828-1910), 네크라소프(1821-1878), 고리키(1868-1936)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들이다.

63) '콘페렌치아'는 러시아어로 'конференция'로 '학회'를 말한다.

64) '야회'는 러시아어로 'вечер'로 '저녁 모임', 혹은 '소모임'을 말한다.

65) '크루조크'는 러시아어로 'кружок'로 '동아리'를 말한다.

66) 『선봉』, 「농촌에서의 문화·교양 사업에 대하여-전 동맹 공산당(볼셰비키) 원동변강 위원회 뷰로의 결정」(1936년 4월 11일, 2면).

본 논문에서는 1924년에 생겨난 최초의 고려인 도서관인 신한촌 고려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1920-30년대 극동지역의 고려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과 현황 등에 대해 살펴봤다. 신문 『선봉』의 보도를 보면 고려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가슴 벅찬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인들은 이국에서 최초의 도약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리라”⁶⁷⁾는 러시아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고려인들은 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이 도서관 개막식 날에 많은 부분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고려인이 자신들의 민족도서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겠지만 고려인들은 이 도서관을 통해서 자신을 계발하고 또한 공동으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극동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에게 문화사업과 교양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당국의 취지와 부합했다. 고려인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을 읽는 민족으로 살았던 사실은 이를 유지로 떠받든 후손들이 구소련과 오늘날의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려인들의 구체적인 독서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으로 미뤄둔다. 앞으로의 연구가 이 도서관의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고려인들의 문예창작활동까지 이어진다면 고려인들의 문학세계와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완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67) 이 시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일부이다.

참 고 문 헌

1. 『선봉』 신문

「3월 8일 여자 명절과 신한촌 유치원(유치원 교사 조순진)」. 1926년 3월 8일자, 2면.

「교육사업 - 학년 미만자의 교육」. 1925년 7월 1일자, 2면.

「국제여자데이를 맞으면서 유치원 사업과 여자 해방에 대하여(신촌 제2호 유치원에 서 원장 박마리아)」. 1927년 3월 8일자, 4면.

「다반촌의 각 단체(다반 통신원 김진하, 서재욱)」. 1925년 9월 5일자, 3면.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에 대한 노력여자 명절 3월 8일」. 1925년 3월 8일자, 4면.

「새로 열린 탁아소(알섬 통신)」. 1929년 10월 8일자, 4면.

「신영동 탁아소 원만하게 진행되나 건물 없음이 큰 유감(신영동)」. 1928년 9월 30일자, 4면.

「아동교육사업에 모범을 보였다(금수동 통신)」. 1929년 9월 10일자, 4면.

「아동교육을 규모 있게 하마탕 우두거우 탁아소 - 아동 36인 중 남자 20, 여자 16 - (하마탕 우두거우 기자)」. 1927년 9월 22일자, 4면.

「아동보육사업에 열성(나음 통신)」. 1929년 11월 16일자, 4면.

「아동보육을 위한 여자대표들의 활동(포수동 통신)」. 1929년 11월 16일자, 4면.

「어린이들은 모두 '아동공원'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성격을 아름답게! 신한촌의 아동공원 - 건물과 설비가 없고 경비가 부족하여 큰 곤란(신한촌)」. 1927년 7월 28일자, 4면.

「여름동안 농촌탁아소(의사 알렉스테르 글에서)」. 1925년 5월 19일자, 3면.

「연해도 고려 여자 사업(남수라)」. 1925년 3월 8일자, 3면.

「열둘 10월 혁명 기념을 맞으면서 유치원 사업에 대하여 - 신한촌 제5호 유치원에서 (강마루사)」. 1927년 11월 7일자, 5면.

「유치원 제도」. 1923년 4월 5일자, 4면.

「포시에트의 '유치원', '탁아소' 사업 - 군중의 후원이 요구된다(포시에트 구역 당 간부에서-김)」. 1928년 7월 8일자, 부간2호 2면.

「해삼시 에겔셀드에서 아동공원 개원식을 거행」. 1927년 7월 28일자, 3면.

「해삼위 제2구역 내 여자사업(바이스베르그)」. 1926년 3월 8일자, 2면을 참조할 것.

「해항 신한촌의 유치원을 보고서(정학수)」. 1925년 3월 8일자, 2면.

2. 단행본

보리스 박 ·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4.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서울: 국학자료원, 2010.

이송호·이재훈·김승준, 『연해주와 고려인』. 서울: 백산서당, 2004.

임체완·허성태·정금희·이명희·장우권·전형권, 『연해주 고려인의 범파 생활 그리고 교육(1920-30년대)』. 서울: 북코리아, 2012.

Бэ Ын Гиёнг, “Краткий очерк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1922–1938)”. МГУ, 2001.

Бэ Ын Гиё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20–30-е годы XX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1998.

“Корейцы в СССР,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ечати 1918–1937 гг.”. Москва, 2004.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В РАН, 2004.

3. 논문

박찬수, 「1920-30년대 고려인 출판문화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1, 2015, 91–109쪽.

반병률,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19, 2003, 63–92쪽.

반병률,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清)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 제」. 『역사문화연구』 30, 2008, 153–232쪽.

배은경,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 교원 양성 정책과 원동조선사범대학에 관한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슬라브학보』 30-3, 2015, 81–123쪽.

배은경, 「고려인 신문 『선봉』을 통해 본 1930년대 (원동고려극단)의 극예술 활동과 고려인 사회에서의 그 위상과 역할」. 『재외한인연구』 35, 2015, 229–261쪽.

배은경,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고려사범전문학교에 관한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2015, 129–174쪽.

배은경, 「소련 고려인 사회의 문화생활(1920-1930년대)」. 『대동문화연구』 43, 2003, 87–110쪽.

배은경·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56, 2015.

양민아, 「1920-30년대 연해주 한인들의 공연예술활동 현황연구」. 『재외한인연구』 34, 2014, 297–322쪽.

이상갑, 「고려인 문학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선봉』에 실린 작품과 문예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1, 2014, 23-43쪽.

정막래, 「1920년대 극동지역 미취학아동 교육기관: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 연구』 57, 2016, 119-147쪽.

Сим Лариса, “Корейцы Союза ССР,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20-е годы XX в. – начало XXI в.)”.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Краснодар, 2006, с. 1-27.

Сон Жанна, “Корей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истеме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юза ССР. 1920-1930-е годы”.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Москва, 2009, с. 1-29.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920~30년대 러시아 극동 지역의 고려인 도서관에 대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24년 러시아 연해주 극동 지역에서 고려인 도서관이 어떤 상황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당시 고려인들이 고려인 도서관에 대해 보여 주었던 태도 그리고 소련 사회에서의 고려인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의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당시 소련 정부가 발행한 『선봉』이란 고려인을 위한 지방 신문의 기사에서 고려인 도서관과 관련된 기사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에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독창성을 지적하였으며, 본 논문의 연구 방법과 범위를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고려인과 고려인 도서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 러시아 극동 신한촌에 세워진 고려인 도서관을 통해 첫 번째 소비에트 고려인 도서관의 특징을 찾아봤다. 제4장에서는 소비에트 고려인 도서관에서 어떠한 장서들을 구비하고 있었는지 장서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고려인도서관의 장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고려인들의 문예창작 활동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고 미래에 연구해야 할 주제로 지적했다.

투고일 2018. 3. 19.

심사일 2018. 4. 4.

개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고려인(Koryoin), 고려인도서관(Koryoin library), 신한촌 (Sinhanchon), 연해주(Primorsky Krai), 선봉(Seonbong)

Abstracts

A Study on the First Soviet Korean Library of Shinhanchon in the Far East in 1924

Jeong, Mak-lae · Joo, Dong-wan

This paper is a study on Koryoin (Korean Russian) Libraries in the Russian Far East in the 1920s and 1930s. We specifically examined how the Koryoin library, first appeared at Sinhan-chon in the Far East region of Russia, Primorsky Krai in 1924. We investigated the attitudes of the Koryo people toward the Koryo library, the role of the Koryo library in Soviet society, 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librar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losely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the Koryoin library found in local newspapers, such as "Seonbong", written for Koryoin, which was issued by the Soviet government at the time.

This study is divided into five parts. In the introduction, we review existing literature, point out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and present the research methods and scope of this paper. In part 2,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yoin and the Koryoin library. In part 3,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Soviet Koryoin library by taking a look at the Koryoin library established in Sinhan-chon, Far East Russia. In part 4, we look at the size and content of the collection at the Soviet Korean librar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mentions Koryo people's literary creative activities, which were based on the collection at the Koryoin library. These literary creative activities were not covered in this paper, but were emphasized as subjects to be studied in the future.